

1

가정예배 · 구역예배

충현의 만나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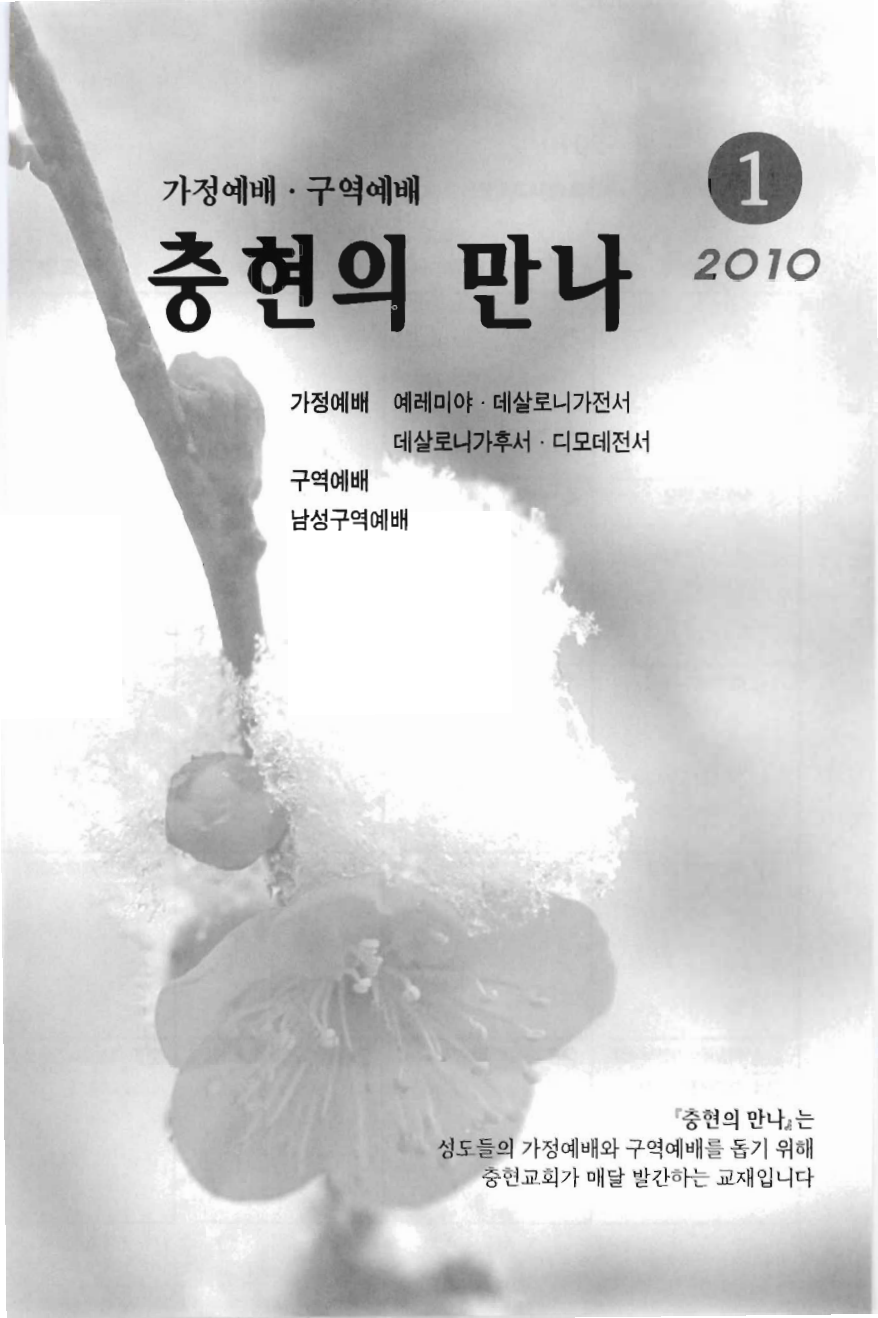
가정예배 예레미야 ·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 디모데전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제주시충현교회
장 고 의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충현의 만나

1

2010

가정예배 예레미야 ·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 디모데전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1

2010
January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 예레미야 13장	4 예레미야 14장	5 예레미야 15장	6 예레미야 16장
10 예레미야 20장	11 예레미야 21장	12 예레미야 22장	13 예레미야 23장
17 예레미야 27장	18 예레미야 28장	19 예레미야 29장	20 예레미야 30장
24 데살로니가전서 4장 31 디모데전서 3장	25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 데살로니가후서 1장	27 데살로니가후서 2장

February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Memo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예레미야 11장

2 예레미야 12장

· 교회 주요일정

1일 신년감사예배

3일 제1차 성찬식

31일 선교주일

7 예레미야 17장

8 예레미야 18장

9 예레미야 19장

· 나의 주요일정

14 예레미야 24장

15 예레미야 25장

16 예레미야 26장

21 데살로니가전서 1장

22 데살로니가전서 2장

23 데살로니가전서 3장

28 데살로니가후서 3장

29 디모데전서 1장

30 디모데전서 2장

- ① 충현의 모든 성도가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살전 4:13~18)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소서.
-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 ③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뜻(빌 2:2)이 되어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워 주소서.
- ④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일꾼이 양성(딤후 4:6)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딤후 1: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⑥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행 1:8)에 모든 성도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벧전 2:9)가 되게 하소서.
- ⑦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시고, 예루살렘 찬양대(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⑧ 충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납골시설 건립 및 함양 충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전 세계의 달력이 20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2009년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상황이 어땠든 지난해에 일어났던 모든 일은
 이제 모두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그것이 나뻐던 일에 대한 회한이든 혹 좋았던 일에 대한 자긍심이든,
 우리는 뒤돌아보는 것을 멈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기도합시다.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합시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막힌 담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전하는 위대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엡 5:16).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2010년 1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사회자
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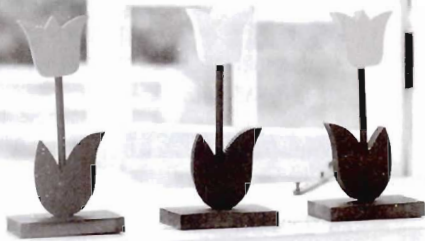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본문을 봉독

가 정 예 배

매일성경독상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11장 · 찬송가 274장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긍휼을 내려 달라고 기도합니다(렘 10:23~25).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 단호합니다(11절).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를 한다고 해도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고집스럽게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극도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죄악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이를 단절한 담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국 이 막혔던 담을 헐기 위해서는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을 의지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통하여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할 때 비로소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며 회개하길 바랍니다.

"나 여호와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렘 11:11)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소서.

② 종현의 모든 성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2010년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 의한 살해 음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 부고히 박해를 당하는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면서 오랜 의문을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1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인데 그분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로움과는 모순 되는 일들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읍과 하박국 등 구약의 많은 저자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읍은 자신의 회복을 통해(읍 42:10~17), 하박국은 하나님의 해답을 듣고(합 2:4) 신앙의 문제를 해결 받았습니다.

이처럼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신앙인이란면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의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이 승리하고 선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며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구속이라는 큰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잠시 보류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인간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땅에 구속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믿음 위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공의가 반드시 세워질 것을 믿고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길 바랍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시므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렘 12:2)

기도제목 ① 매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② 위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유다백성의 교만을 경고하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 닥쳐올 참담한 상황을 예언하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15~16절). ‘들을지어다’와 ‘귀를 기울일지어다’는 비슷한 동의어의 반복으로, 간곡한 권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에게 간곡하게 촉구하는 것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으로 그들의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회개의 시기는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입니다. 이는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회개의 시기를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타까워서 외치고 있지만 유다 백성은 여전히 멸망의 징조를 느끼지 못하는 영적 둔감함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주님만을 따라가려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감추인 죄악을 주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간을 주셨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행 8:22). 예수 그리스도를 판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 부인한 베드로는 진정한 통회를 한 후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길 바랍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렘 13:15)

기도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쏟아 부으셨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제1차 성찬식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대기근은 유다 전역을 뒤덮은 치참한 재난이었습니다(1~6절). 기근으로 인하여 유다 전역에는 마실 물이 고갈되었고(3절), 농경지가 마르다 못해 갈라졌으며(4절), 생명력이 강한 야생 동물들조차 먹이를 구하지 못해 기진하게 되었습니다(5~6절). 결국 유다 전역은 사람이나 생물이 살만한 곳이 전혀 못 되는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대기근이 임하자 유다 백성은 성문으로 나와 땅에 주저앉아 절규하며 물을 구하였습니다(2절).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 그 자체가 아니라 물을 거둬가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진실로 유다 백성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 갈 수 있다고 자만하며 온갖 죄악을 부끄럼 없이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허무와 절망과 죽음뿐이었습니다(렘 2:13).

가뭄은 유다 민족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극심한 것이었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의 구원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7~22절). 당시 깊은 죄악의 병을 앓고 있던 유다 백성을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9절).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더불어 동족의 죄에 대한 뼈아픈 회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먼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드린 회개의 기도가 바로 죄인 된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렘 14:4)

기도제목 ①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하여 미련함을 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유다를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듭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렘 14:7~9, 13, 19~22). 하지만 하나님의 단호하신 심판의 의지로 인해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 시대와 사사 시대의 대표자인 모세와 사무엘이 매달린다고 할지라도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1절). 그 결과 유다 백성은 죽음과 칼과 기근과 포로의 처지에 처할 것입니다(2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퍼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라”(6절).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불변(不變)의 것임을 깨달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치 읊처럼 자신의 삶을 한탄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 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마는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10절).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함께할 것’(20절)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이것이야말로 모든 위로의 핵심이요, 복음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 1:23).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렘 15:21)

기도제목 ①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행 1:8)에 모든 성도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행전 2:9)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 행위로 유다 백성에게 예언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첫째,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식을 두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2절). 둘째, 초상집 방문을 금하십니다(5절). 셋째,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심을 금하십니다(8절).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생활의 여러 면들을 통해 유다 백성에게 임박한 재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장차 유다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유다 사회가 붕괴할 것을 암시합니다.

16~17절에는 심판의 한 단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 상태에서(17절), 이방 대적의 칼날은 마치 고기를 낚는 어부처럼, 사냥하는 포수처럼 날날이 유다 백성을 사냥할 것입니다(16절). 그때에는 오히려 처자식이 없는 것이 낫고,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으며, 또한 기쁨의 소리를 귀 씻고도 찾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적인 행동 속에 담긴 의미를 바로 깨달아 그날이 오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돌이킴이 마땅했습니다. 어느 때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망하는 법입니다. 선민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멸망시킬 목적으로 심판의 채찍을 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고 더욱 온전히 십자가만을 붙들도록 채찍을 드시고 냉엄히 징계하십니다(히 12:5~1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렘 16:21)

기도제목 ①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② 당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중심으로 주님의 교회(마 16:18)를 세우는 데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유다의 죄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금강석 철폐로 기록되되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닌, 마음 판과 제단 뿔에 새겨졌습니다(1절). 따라서 변명도 부인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죄악에 따른 심판은 필연적입니다. 그렇다면 살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7절).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곧 세상에 뿌리를 박고 있는 자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5절). 그들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6절). 그것은 무익한 나무로 땀감 이외에는 달리 쓸모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명성을 의지하고 좇는 자들이 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을 의지하고 거기에 뿌리를 박고 있는 자들은 결국 아무런 열매가 없는 자들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백성의 조롱과 멸시가 뒤 따르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탄원의 간구를 드립니다(12~18절).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용기를 얻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금 일어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외칩니다(19~27절).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시 머물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명하고 계신 안식일을 마땅히 준수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신 바를 순종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걷는 자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렘 17:14)

기도제목 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뜻(빌 2:2)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유다 백성을 일깨우기 위해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비유로 삼아, 진흙 된 이스라엘에 대하여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외쳤습니다(6절).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7~11절).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유다 백성에게 생생하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더욱 완악해져 가기만 했습니다(12절).

이제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으실 것입니다(17절). 정녕 생명과 복과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등을 돌린 인생에게는 오직 수치와 절망만이 남겨질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그들을 칠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 땅은 철저히 황폐되고, 후일에 사람들은 그곳을 보며 놀라고 비웃으며 머리를 흔들 것입니다(16절). 이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지금 당장 임하지 않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심판의 날까지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고, 그 날에는 오직 무섭고도 엄중한 심판의 칼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피조물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긍휼하고 풍성하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렘 18:6)

기도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중심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깨진 옹기

예레미야 19장 · 찬송가 290장

유다의 악한 왕 아하스와 므낫세 이후로, 예루살렘 성을 남쪽에 위치한 힌놈 골짜기는 우상숭배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그 골짜기에 '도벳'이란 제단을 쌓아놓고, 심지어 어린 아이를 불살라 이방 우상에게 바치는 가증한 몰렉 숭배 및 바알 숭배를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곳에서 옹기를 깨뜨리면서(10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깨진 옹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상숭배자의 종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은 복받고 잘 살기 위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복과 생명을 빌던 곳이 바로 죽음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6절).

우상, 그 자체가 헛된 것입니다. 그것을 섬기고 좇은 자의 운명은 깨진 옹기와 같이 비참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토록 경고했는데도 그들은 구속의 하나님을 망각한 채 목을 뻗뻗하고 제 욕심을 좇아 부지런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철저한 파멸로 인하여 조롱과 수치와 모욕만이 되돌아왔습니다(8절). 바로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받을 보응입니다. 그러므로 깨진 옹기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복음에 합당한 백성으로 거듭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갈 5:22~24).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렘 19:10)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겸손히 기도하게 하소서. ② 교구와 부서를 섬기는 교역자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마 16:18)를 섬기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던 당대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각성시키기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선포합니다(렘 19:14~15). 그러자 성전의 총감독인 바스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잡아 매질하고 착고를 채워 옥에 가두었습니다(1~2절). 다음 날 예레미야 선지자는 풀려나자 즉시 바스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바스홀과 그의 가족과 친구들(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을 향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3~6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같은 메시지의 내용 때문에 모두에게 배척당합니다. 듣는 자들이 좋아할 리 없었습니다. 특히 죄악에 눈 먼 자들에게 있어 그러한 메시지는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의 위협까지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치욕과 모욕뿐이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직을 그만둘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잠시 뿐 그의 중심에 불타는 듯하고 골수에 사무치는 듯한 사명 의식을 억누를 길이 없었습니다(9절). 그는 답답하여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는 핍박이요 안으로는 변민이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국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11절). 왜냐하면 '두려운 용사'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악인을 누르고 십자가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고난 중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렘 20:9)

기도 제목 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인자와 진실을 찬양하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예레미야 21장 · 찬송가 337장

시드기야 재위 9년(B.C. 588년), 유다가 바벨론의 제3차 침공을 받았을 때 시드기야 왕은 다급한 나머지 옥중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이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역설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를 함락시킨 나라는 바벨론이요 그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 일을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4~7절). 곧 “내가…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5절)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먼 북방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토록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패역한 유다를 치고자 드신 진노의 막대기요 형벌의 도구였습니다(삼하 7:14). 그 도구는 칼과 기근과 염병으로 결국 교만한 유다의 뺏뺏한 목을 여지없이 꺾어 놓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9절)고 권면합니다. 이는 바벨론의 침공이 유다 백성이 지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깨닫고, 그 형벌을 순순히 달게 받으라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언젠가 이루어질 회복의 약속을 소망하고, 이제부터라도 회개와 진실의 삶을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형벌의 때에 올바른 자세는 그 형벌의 원인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요 또 한 그 형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는 자세입니다. 그래야만 형벌이 형벌로만 끝나지 않고, 연단을 이루어 마침내 십자가 은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렘 26:40~42).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렘 21:8)

기도제목 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가정의 머릿돌이 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남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 존귀함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와의 말씀으로 인한 것입니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그들의 존귀함과 영광은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궁핍과 고통과 압제를 상징하는 황폐함입니다(5절). 여호와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왕가를 유지하고 계승하는 결정적인 힘이었지만 왕들은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21절).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만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악행을 통렬하게 지적하시며 모든 사람이 듣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여호야קים의 행동은 참으로 악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을 만족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압박과 강포를 행했습니다. 이러한 악행은 이방의 통치자들에게도 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17절). 이러한 지적에도 왕들은 돌이키지 못하고 그들의 악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백향목으로 화려한 궁정을 짓는 외식에 있었습니다(15절).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왕에게 의와 공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렘 22:4)

기도제목 ① 십자가의 복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복음 위에 서게 하소서. ② 겨울 성경학교 · 수련회를 통해 모든 학생이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살전 4:13~18)를 믿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미래의 왕 메시아

예레미야 23장 · 찬송가 483장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한 의로운 가지는 왕이 되어 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입니다(5절). 이 의로운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공의는 공식적으로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언도된 판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절대 왕권을 가지고 심판대에서 선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되 절대적인 공의에 입각하여 판결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로운 가지가 임하는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의 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성도들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자유를 베풀어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는 날에 유다는 평안히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포가 없는 안전한 상태 혹은 아무런 염려가 없는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잠시 살다가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생의 염려로 인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눈물과 위협과 공포와 두려움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찬송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자기를 부인함으로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길 원합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렘 23:6)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두 광주리의 환상을 통하여 유다 백성을 위로하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던 시대기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포로가 된 백성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경고가 필요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항복 권유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렘 27:12). 그러나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권유를 완강하게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들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로,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은 축복된 자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자가 축복된 자요,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자가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의 포로됨은 일차적으로는 그들의 범죄에 대한 징계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하게 하고 또한 그들을 연단하여 회복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다의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회피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주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뻘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렘 24:2)

기도제목 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하소서. ② 충현의 재단유지 · 동산 · 복제들을 복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수많은 선지자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순종한 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로 바벨론에 의해 70년간의 포로 생활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에게도 심판이 주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세계의 모든 민족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가 될 것과 바벨론이 심판당하게 될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전반부(1~14절)와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중반부(15~29절), 그리고 하나님의 전우주적 심판에 대해 전망하고 있는 후반부(30~3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불신앙의 모습은 그들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6절). 이스라엘 민족이 귀로써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심판에 대한 끊임없는 경고는 결국 그들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대해 엄중한 공의를 시행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고도 임박한 심판의 소식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써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렘 25:7)

기도제목 ①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소서. ② 구역예배를 통하여 모든 구역원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며 십자가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예레미야 26장 · 찬송가 340장

16 토요일

죽음을 무릅쓰고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돌이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패역한 유다 백성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1~7절),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고소 및 예레미야 선지자의 진술(8~15절), 그리고 삶과 죽음의 상황 그리고 재판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16~24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사실대로 담대히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 속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집 뜰에서 말씀을 선포한 것은 무엇보다도 종교적 절기를 맞아 원근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을 이곳에서 가장 많이 접촉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시일 내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는 성소를 선택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백성의 반응은 스테반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 백성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스테반의 설교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제히 귀를 막고 스테반을 돌로 쳤습니다(행 7:54~60). 예레미야 선지자도 거짓 예언을 한다고 하며 유다 백성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완악함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렘 26:13)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에 모든 남전도회원이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예레미야 선지자는 줄과 멍에를 자신의 목에 걸고 예언합니다. 이는 유다가 바벨론의 멍에를 메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의 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임박한 재앙에 관하여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유다의 심판과 파멸을 예언해왔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 즉위 초기에 주변 열국과 유다의 임박한 멸망을 선포하면서 시드기야로 하여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된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권고를 무시하고 반 바벨론 정책을 추진하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유다를 멸망에 빠뜨림은 물론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압송되어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왕하 25:1~7). 하나님의 징계에 처한 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멍에가 속히 끝난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나라의 멸망을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합니다(16~17절).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들은 바벨론에 대한 반역을 부추겨서 결국 바벨론의 맹렬한 공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귀를 만족시키는 말만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참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렘 27:2)

기도제목 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학생들에게 십자가 복음만을 확신있게 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인 하나님의 직접적인 충돌과 대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70년의 긴 포로 생활을 주창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거짓 예언으로 단정하였고, 바벨론이 탈취해 간 성전의 기구들이 2년 내에 회수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에 걸린 멍에를 빼앗아 꺾어 버렸습니다(10절). 이러한 하나님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쇠 멍에를 준비했고, 거짓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기 위하여 그가 조속한 시일 내에 죽을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그 저주는 그대로 시행되어 결국 하나님은 죽고 말았습니다(17절). 참된 선지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은 누구의 말이 실현되느냐로 결정됩니다(9절).

당시 시드기야를 비롯한 대부분의 백성은 이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고, 그 결과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데는 무관심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대단한 고난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은 증거 되고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증거자는 환경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이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믿으며 바라볼 뿐입니다(딤후 1:10). 고난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어야 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 받게 되리라”(렘 28:9)

기도제목 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의지하게 하소서. ② 월요 새벽 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예레미야의 편지

예레미야 29장 · 찬송가 455장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을 향한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는 포로들을 향한 권고(1~6절)와 포로들의 귀환에 관하여(10~19절),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비참한 장래에 관한 내용으로(20~32절)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며, 징계의 기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7절).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70년의 기한이 차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이나 포로생활을 하고 있는 바벨론에서는 거짓 예언자들이 발흥하여 유다 백성이 조속한 시일 내에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본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거짓 예언함으로써 백성으로 하여금 헛된 소망에 사로잡히게 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 처하게 하신 이유, 즉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70년간의 포로 생활의 기간을 밝힘으로써 참된 근신과 회개의 날을 보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포로생활을 재앙으로만 받아들인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고난 가운데 유익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깊고 선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렘 29:13)

기도 제목 ① 영으로 심어 생명과 평안을 거두는 은총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성도가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회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30장 · 찬송가 94장

20 수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구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지위를 다시 되찾는 회복의 사건입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는 고난 중에 처해 있던 언약 백성에게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까닭에, 이 부분을 가리켜 흔히들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회복된 이스라엘이 다윗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베푸실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바벨론의 포로생활에서 해방되어 귀환할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게 될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포로 됨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절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택한 백성을 그들의 죄로 인해 절망의 구렁텅이에 집어넣기도 하시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구원의 소망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구원받았듯, 오늘날의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굳건히 지키고 살아간다면 더욱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렘 30:22)

기도제목 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전하게 하소서. ② 찬양 위원회와 9개 찬양대, 2개 연주대가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 찬송가 85장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시기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10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즐거운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인내와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며 누군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활동과 인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더러는 일을 그만두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며, 주님은 어느 순간에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징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의 구속(로 8:23~25)과 의의 소망(갈 5:5)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예비해 놓으신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굳게 하는데 있어서 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슬픔 중에 놀라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이 곧 오신다고 믿는다면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살전 1:3)

기도제목 ①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② 교구와 부서를 섬기는 모든 일꾼이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마 16:18)를 섬기게 하소서.

☞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바울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4절). 이 복음은 바울이 만들었거나 인간들에게서 받은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보았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보화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옥을 당했으나 데살로니가로 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함으로부터 생겨난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다른 사도들처럼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행 4:13, 29, 31). 특히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2절)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4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온 천하 만민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데 우리 자신을 드리는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어서, 다윗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칭찬 받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살전 2:4)

기도제목 ①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의지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금요찬양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하나님의 뜻을 행함

데살로니가전서 3장 · 찬송가 425장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10~11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선교의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습니 다. 바울은 모든 일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더 잘 아시므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자신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고자 계획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엡 6:6).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요 4:34).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살전 3:12)

기도제목 ① 십자가의 은총을 순종과 열린 마음으로 채움 받게 하소서. ② 1·1·1 전도(딤후 1:3)와 교회주변전도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 찬송가 219장

24 주일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 기쁨의 대상이 자기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람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1절).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 1:1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5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부르시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요 8:29)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순종하여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살전 4:9)

기도제목 ①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과 열린 마음으로 가득 채움 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근거합니다(9절). 낮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한다는 말씀이 이것을 입증합니다. 깨어 근신하는 자들은 구원 얻은 약속을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낮의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성취는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총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설 때에, 구원을 완전히 이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10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양으로 삼으사, 성도로 그와 함께 영원히 연합하여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십자가를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깨든지 자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의 것이며,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구원의 근거가 되는 십자가를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살전 5:9)

기도제목 ①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인간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특별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믿음을 보여 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칭찬을 비롯해 성도들을 핍박하는 대적들에 대한 심판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문안 인사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증가되었다는 기쁜 소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입증될 때에 그들을 핍박한 자들은 환난을 받게 되고, 핍박을 당한 그들에게는 안식이 주어질 것임을 역설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복돋우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 주었던 믿음과 사랑은 모든 성도에게 강조되는 것입니다(2~3절).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요일 4:20~21). 핍박받는 가운데 요구되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형벌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핍박받는 성도들은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히 10:30)을 알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여야 합니다(살전 5:15). 그뿐 아니라 더 적극적인 태도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벧전 3:9).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살후 1:3)

기도제목 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교회가 추진중인 여러 양로원 · 납골시설 건립 및 함양 충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사

데살로니가후서 2장 · 찬송가 519장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탄과 그 세력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 세력들에게는 주님의 심판이 임하겠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멸망치 않고 반드시 구원 얻을 존재임을 말씀해 주십니다(13~14절). 우리가 구원 받은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 받았음을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후에 자신의 선택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돌보심을 보여 주신 사건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선택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با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갈 4:6). 이처럼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성도들로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살후 2:14)

기도제목 ①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복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고, 자신이 전해 준 교훈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질책하고 있습니다(6절). 규모 없는 자들이란 그릇된 재림관과 임박한 종말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해 불성실하며 무위도식하는 무질서한 생활을 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왔으니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이것을 주장합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아주 심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면서 교회에 문제만 일으키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의 특징입니다(딤후 5:13). 망령된 행실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규모 없는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십자가 복음에 굳게 서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사랑의 삶이 아닙니다. 사랑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살후 3:11)

기도제목 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가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1장 · 찬송가 488장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2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행 4:12). 따라서 구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람이 복음의 일꾼으로 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영광의 소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골 1:27).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산 소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벧전 1:3).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하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몸과 마음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딤후 1:14)

기도제목 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뜻(빌 2:2)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2장 · 찬송가 96장

30 토요일

사람에게 있는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죄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4~5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며(빌 2:6). 하나님과 하나이시며(요 10:30).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계 3:14).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구속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로 올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는 수없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구주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죄 아래 있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중보자이시며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후 2:5)

기도제목 ① 예수님을 따라가며 복음에 순종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교구와 부서를 섬기는 모든 청지기가 십자가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에게 가기를 바라나 만일 지체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15~16절).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또한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석으로 세워졌으며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리로 증거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요 1:14)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벧전 3:18)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로 1:4)은 이성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의 빛 안에서 믿을 수 있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을 깨달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하야 하며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마 16:24).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자신을 부인할 때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빛 안에서 믿음으로 경건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며, 그렇지 않다 하는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딤후 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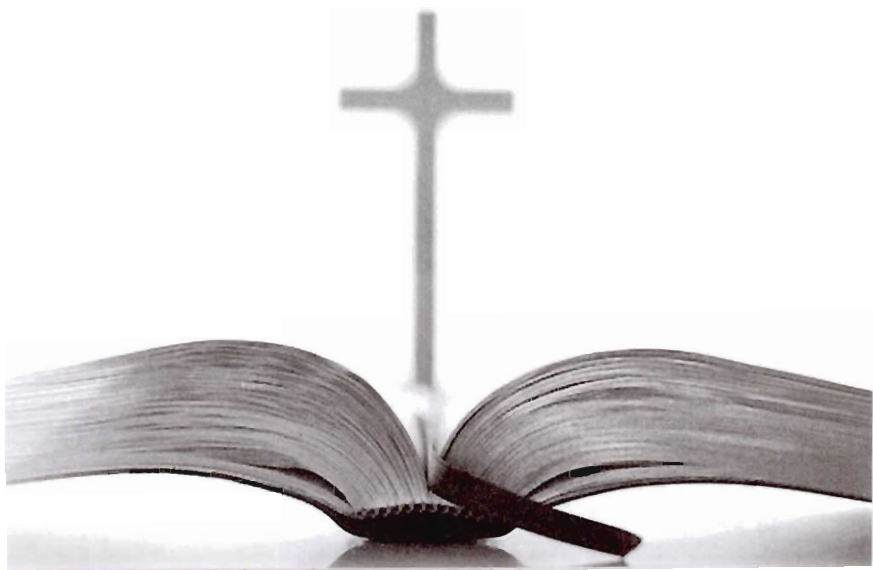
기도제목 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행 1:8)에 모든 성도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벧전 2:9)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구역예배

1월 구역교재 초점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의해 재창조될 새 세계를 소망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금요모임	본문	제목	초침
0101	누가복음 22:19~20	성찬식과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는 은총의 선물이다
0108	사도행전 4:29~33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가?	성령님은 부흥의 원동력이다
0115	마태복음 26:6~13	한 여자, 이 여자	주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신다
0122	요한계시록 21:5	모든 새로운 것	예수님은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
0129	요한복음 12:20~21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구역예배 진행

●●●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 구역교재 전개

도 입

믿음의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전 개

말씀의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결론 및 적용

십자가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성찬식과 크리스마스

| 초점 |

예수 그리스도는 은총의 선물이다

| 찬송 |

찬송가 119장 옛날 임금 다윗성에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 본문 | 누가복음 22:19~20

⁽¹⁹⁾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²⁰⁾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넉넉히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창 2:7 _____

약 1:17 _____

성찬식과 크리스마스는 둘 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크리스마스에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눅 2:7 _____

성찬식은 최고 중에 최고의 선물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선물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내 몸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눅 22:19 / 또 떡을 가져 ☐☐ ☐☐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
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_____ 하시고

※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써 보십시오.

선지자	예 언
이사야 (사 7:14)	
미가 (미 5:2)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이라는 한계 속으로 들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셔서 제한된 인간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빌 2:5~7)을 나누어 보십시오.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찬식 때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주셨습니다.

눅 22:20 / 저녁 먹은 후에 ☐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_____
_____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최초의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첫아들을 강보에 쌌습니다.

※ '강보'의 사용 용도와 그 의미를 설명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짐승들을 먹이던 구유에 뉘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주님께서 모든 죄를 위해 희생되실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벧전 1:19 _____

요일 1:7 _____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 흘려넘겼던 보혈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찬식 때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쏟아 부으셨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자유롭게 나누어 보십시오.

마 26:39 /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습니다.

※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요 6:29,40).

예수님은 끔찍한 고통과 환난을 당하셨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중에도 예수님은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며 죽인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눅 23:34

십자가로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후로 처음 맞이하는 성찬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을 진심한 마음으로 주의 깊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깊은 감사로 받아들이십시오.

※ 예수님께 받은 선물은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는 무엇인가?

- 선물 _____

- 감사 _____

골 2:6~7 /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로 받았으니 그 에서 행하되 그 안에 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을 받은 대로 에 굳게 서서 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매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총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 믿음의 기도 |

1. 성찬식과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주신 은총의 선물을 알게 하소서.
2.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의 가정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가?

| 초점 |

성령님은 부흥의 원동력이다

| 찬송 |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 본문 | 사도행전 4:29~33

☞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 ☞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전 세계의 달력이 20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2009년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지난해에 일어났던 모든 일은 이제 모두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그것이 나빴던 일에 대한 회한이든 혹 좋았던 일에 대한 자긍심이든, 우리는 뒤돌아보는 것을 멈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 2009년 나의 회개와 2010년 나의 소망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나의 회개(2009년)	
나의 소망(2010년)	

행 2:38 _____

요일 3:3 _____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해야 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 초대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자

초대 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영적인 능력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과 이후에 일어난 역사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행 1:15, 2:1~4, 41, 4:4)

성령을 받기 전까지 대부분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겉쟁이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후, 예루살렘 내부의 적대적인 반 그리스도 세력으로 인해 분위기가 극도로 험악해졌지만 오히려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행 4:29 /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을 하게 하여 주시옵며

성령의 영적인 능력이 초대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올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자

초대 교회는 많은 회심자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행 16:31

요일 1:9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계 2:4~5

예수님이 삶의 최우선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의 구주시며 첫사랑으로 계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히 12:2

기도하자

초대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행 4:31 /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담대히

※ 성령의 통치 아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부정적인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마 16:24).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응답으로 가득한 삶이 되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눅 22:44

복음을 전파하자

초대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행 4:33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모이면 기도했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전도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눅 1:37 / 대저 하나님의 모든 은 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딤후 4:5 /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의 일을 하며 네 를 다하라

※ 2010년 복음전도를 위한 나의 결심과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한 영혼을 얻기 위해 노력한 지가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개인적인 전도가 가장 절실히 필요합니다.

십자가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나아가지 마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요 14:26

고전 2:4

초대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 안에서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한다면 우리 교회도 놀랍게 부흥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 믿음의 기도 |

1. 매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2.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의 가정에 십자가의 은총으로 넘치게 하소서.

한 여자, 이 여자

| 초점 |

주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신다

| 찬송 |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 본문 | 마태복음 26:6~13

⁽⁶⁾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⁷⁾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 ⁽¹²⁾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¹³⁾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베다니아에 들르셨습니다. 나병환자 시몬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모셨습니다(마 26:6). 그것은 유월절이 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 26:2 _____

※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욕심으로 가득했던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 여인을 살펴보면서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오다

한 여인이 매우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마 26:7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여인들은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모두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 매우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보물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살펴 보십시오.

마 6:20~21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바울처럼 그녀는 값비싼 향유를 자신의 구주와는 견줄 수 없는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빌 3:8 / 또한 모든 것을 ☐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의 전부를 드리다

한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막 14:5 _____

※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향료의 가치와 제자들의 반응(마 26:8~9)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이것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 7:3 _____

고전 4:5 /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_____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_____ 들을 드러내고 _____ 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녀의 마음과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환경이나 조건, 혹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 26:13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_____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 하리라 하시니라

※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마 26:10~12).

이 여인은 자신이 행한 일의 결과에 대해 완전히 알지 못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그녀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집에 들르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되었고 자신의 삶과 정성을 주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그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나아갔습니다.

※ 지금(오늘),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녀가 자신에게 행했던 일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녀가 행한 일은 복음과 함께 전파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으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복음과 함께 영원히 전해질 것입니다. 그녀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잠 10:7 / 의인을 할 때에는 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되느니라

※ 요한복음 9:4, 에베소서 5:16, 골로새서 4:5~6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우리도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처럼 실수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 믿음의 기도 |

1.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2. 세상에서의 행복한 삶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의 마음이 복음의 은총으로만 가득하게 하소서.

모든 새로운 것

| 초점 |

예수님은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

| 찬송 |

찬송가 7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 본문 | 요한계시록 21:5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
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
시고

모든 사람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새 것을 사고, 그것은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심지어 골동품 수집가조차 새 것을 삽니다. 특히 컴퓨터, 핸드폰, TV는 요즘 가장 빠르게 바뀌는 아이템들입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가 무엇을 사든지 얼마 못가서 결국 구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좋은 소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애 3:21~23

※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새 낙원을 창조하심으로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 낙원을 재창조하심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새로운 것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요 1:12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종교를 갖는 것의 차이는 종교는 지켜야 할 일련의 법칙을 제공하는 반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이전 것들은 지나갑니다.

※ 고린도후서 5:17 말씀을 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을 써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죄를 사해 주시며 신자들은 새로운 기록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새로운 본성, 새로운 소망, 새로운 하늘의 본향을 갖게 됩니다.

※ 요한복음 3:3~5, 14:1~3 말씀을 묵상한 뒤 나에게 주는 깨달음과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살전 4:16~17 /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 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 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 있으리라

※ 예수님의 재림이 나에게 주는 소망과 은혜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모든 육체는 시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대부분은 태어날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이빨도 없고 머리카락도 거의 빠진 채 이 땅의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 신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요일 3:2 /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_____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_____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_____ 때문이니

고전 15:51~53 _____

만물은 재창조된다

우주가 재창조될 때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계 21:1~2 / 또 내가 과 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 충현찬양곡집 3장에 있는 <거룩한 성>을 찬양하고 가사를 묵상한 뒤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가 이 땅에 가져다 준 모든 슬픔을 없애실 것입니다. 더 이상 우는 일과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신자들은 영원한 새 처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친밀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 21:3~4 /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_____ 하나님은 친히 _____ 모든 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이 없고 하는 것이나 하는 것이나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계 21:5 _____

십자가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 신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엡 4:22~24

롬 12:2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롭게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로 여러분은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위안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 믿음의 기도 |

1.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만 믿고 따르게 하소서.
2. 헛된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 초점 |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 찬송 |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 본문 | 요한복음 12:20~21

⁽²⁰⁾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²¹⁾ 그들이 갈릴리 벳새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까지 그를 보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지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각각 하나씩 말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많은 무리 가운데는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을 발견했고 그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새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하니”(요 12:21). 그들의 질문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왔는지 정말로 이상합니다. 왜 성경은 이 헬라인들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요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모든 인류의 간절한 소망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눅 4:18~19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깨우쳐 주실 것이라 믿으며 주님을 뵈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롬 3:23

요 3:16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9~10).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 10:13).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

종교예식을 통해 위로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요 1:12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의 종교 예식에 참석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기를 원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세례'와 '성찬'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갈 3:27

고전 11:24~25

영생은 종교 예식을 통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에는 어떤 인간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적인 업적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요 1:13).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진실을 찾는 모든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참된 신자들은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 위에는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빌립을 찾아와 정중하게 청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 매우 타당한 요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 5:14 _____

마 5:16 _____

※ 복음의 통로로서의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살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며 먼저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먼저 가서 청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이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딤후 4:2 _____

딤후 1:3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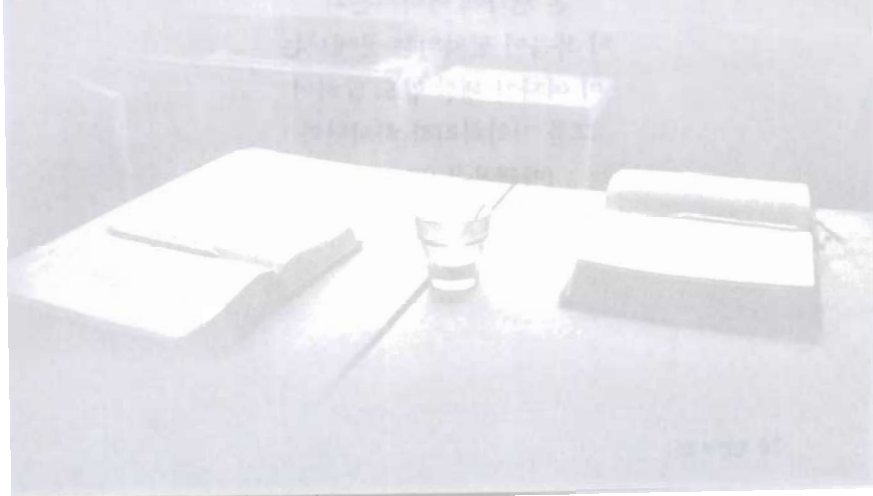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유월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유월절을 하나의 예식으로 참석했을 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만난 사람은 몇몇 헬라인들뿐이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사람들을 맞이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 믿음의 기도 |

1.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2. 헛된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순종하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 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 여자, 이 여자

⁽⁶⁾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⁷⁾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

⁽¹²⁾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¹³⁾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6-13)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베다니에 들르셨습니다. 나병환자 시몬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모셨습니다(마 26:6). 그것은 유월절이 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마 26:2). 제자들은 예수님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과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곧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안위를 염려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의 성경 본문은 제자들의 마음이 딴 곳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여인을 살펴보면서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오다

한 여인이 매우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향유를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마 26:7).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 외에도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여인에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여인들은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 여인에게 고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 곧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 방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매우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보물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0~21).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바울처럼 그녀는 값비싼 향유를 자신의 구주와는 견줄 수 없는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빌 3:8).

자신의 전부를 드리다

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 향유가 대략 삼백 데나리온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마 14:5). 이것은 한 노동자의 300일 치 급료와 맞먹는 값이었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모든 사람은 그녀를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마 26:8~9). 이 여인은 1년 치 월급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많은 사람을 돕는 데 사용될 수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찰떡 튀었습니다. 그들은 이 어리석은 여인이 많은 돈을 쓸데없이 낭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이것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7:3은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았지만 그들은 많은 사람을 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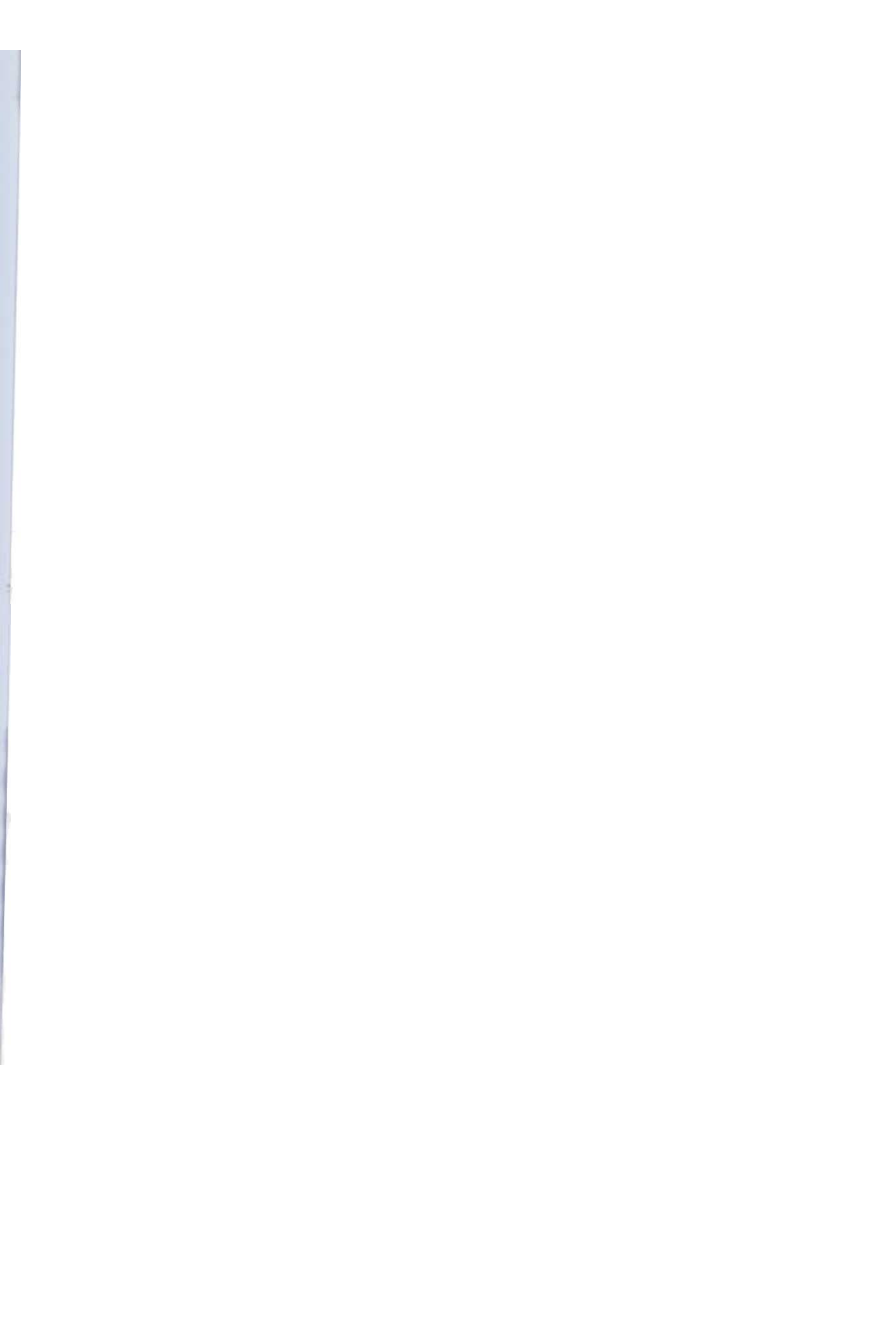
담시키는 방관자들이었습니다. “교회에 이미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왜 당신은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4:5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그녀를 둘러싼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선물은 예수님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과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환경이나 조건, 혹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마 26:13).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 여인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마 26:10~11). 많은 신자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마 26:12). 그녀의 희생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완전히 알지 못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

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그녀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집에 들르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되었고 자신의 삶과 정성을 주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그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니다. 그녀는 나중에 아니라 지금 나아갔습니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는 다음에도 있지만, 자신에게 행해졌던 일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녀가 자신에게 행했던 일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녀가 행한 일은 복음과 함께 전파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인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녀의 행동은 복음과 함께 영원히 전해질 것입니다. 그녀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외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나 악인의 이름은 씌게 되느니라”(잠 10:7).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요 9:4). 저는 여러분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이 여인과 같이 그 기회를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엡 5:16). 제자들이 이 여인에게 한 것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체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골 4:5~6). 아멘 ■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0년 1월

Copyright © 2010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진홍용

집필진 |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